

대형 Wide형 LCD 패널 판매 급증

멀티미디어 시대 맞아 모니터 수요 증가 ... 모니터용 19% 수준 성장

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모니터로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크게 늘면서 대형-와이드형 모니터용 LCD 패널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.

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 등에 따르면, 2006년 3/4분기 가로와 세로 16:9 비율의 와이드 모니터용 LCD 패널 출하량은 모두 633만8000장으로 전체 모니터용 LCD 패널 출하량 가운데 19%를 차지했다.

와이드 모니터용 LCD 패널의 출하비중은 2005년 1-3/4분기 3%, 4/4분기 5%에서 2006년 1/4분기 8%, 2/4분기 11% 등으로 2006년 들어 와이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.

모니터용 LCD 패널 가운데 19인치 이상 대형 출하량도 3/4분기 1639만8000장으로 전체의 42%를 기록해 2005년 1/4분기 24%, 2/4분기 25%, 3/4분기 26%, 4/4분기 28%, 2006년 1/4분기 35%, 2/4분기 39%에 이어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다.

LCD 모니터가 와이드화-대형화되는 것은 HD방송이나 영화 등 와이드 화면용 콘텐츠가 대중화되고 한 화면에서 2개 이상의 문서작업이나 화면 크기에 따라 여러 개의 웹사이트 열람이 동시에 가능해지는 등 화면의 효율성이 좋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.

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현재 17인치가 주도하고 있는 LCD 모니터 시장의 50% 이상을 차지않아 19인치 이상의 대형 LCD 모니터가 차지하는 등 대형화-와이드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특히, 2007년 초 출시 예정인 차세대 윈도 운영체제인 <윈도 비스타>의 보급도 대형 와이드 모니터의 수요를 증폭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.

삼성전자 관계자는 "LCD 패널의 대형화, 와이드화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"며 "대형 와이드 모니터용 LCD의 수요가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고유의 우수한 기술력과 공급력을 바탕으로 대형 와이드 LCD 모니터용 패널을 지속 공급할 계획"이라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12/04>